

# “이웃사랑 마르지 않는 장독 되겠습니다”

재활용품 기증 가게 ‘장깡’ 운영 정안식·김선옥씨

“어려운 사람을 돋는 기분, 해보지 않으면  
몰라요.”

광주 동구 대인시장 내 재활용품 기증가  
게 ‘장깡’이 문을 연지 2년 4개월 만에 1200  
여 민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불우이웃들  
에 기증해 화제다. ‘장깡’은 장독대의 전라도  
사투리 ‘장깡’을 소리나는대로 읊친 상호(商  
號)다. 이 점포는 냉장고, TV 등 전자제품은  
물론 탈곡기와 풍구까지 아직은 쓸만한 다

양한 물건을 기증받아 판매하고 있다.

특히 장깡은 지난 2008년 6월 대인시장 내  
길거리에서 노점으로 시작하면서, 수익금의  
일부를 불우이웃돕기에 분배하는 착한 가  
게를 지향하고 있다. 최근 백혈병 어린이 돋  
기 후원금으로 10만원을 한 초등학교의 바  
자에 전달하는 등 그동안 14차례에 걸쳐 독  
거노인과 소년·소녀 가장 등 도움을 필요로  
하는 곳에 작은 정성을 보태왔다.

장깡은 대인시장에서 각각 노점장을 하던  
정안식(65)씨와 김선옥(여·45)씨가 “우리  
좋은 일 한번 해보자”며 의기투합한 후 노점  
에서 재활용품을 팔기 시작한 것이 시초다.  
처음에는 주변에서 버리거나 기증한 옷가  
지와 장신구, 재가도구 등을 길거리에서  
1000원, 2000원에 팔기 시작했다.

누가 살까 싶었지만 워낙 가격이 싸 행인  
들도, 시장 상인들도 한 두개씩 구입하면서  
가게 수입도 늘어갔다.

마침내 정씨와 김씨는 점포 개점 이후 3개  
월간 모은 52만2000원으로 ‘비누·치약 선물

세트’ 50개를 사서 불우이웃돕기에 써 달라  
며 충장동 사무소에 전달했다. 장깡의 첫 번  
째 이웃돕기였다.

정씨는 “하루 몇 천원이지만 돈이 모이고,  
모은 돈을 어려운 사람한테 전달했을 때 사  
람을 돋는다는 그 뿌듯함은 해보지 않으면  
모른다”며 “돈을 모아 기증하고 나면 그렇  
기 기분이 좋을 수 없다”고 말했다.

불우이웃돕기를 평계로 원래 하던 장사를  
더 하려는 게 목적 아니냐는 서려운 시선도  
있었다는 정씨는 “처음엔 눈물도 흘렸지만  
지금은 내 시간을 들여 남을 돋는다는 것 하



나로 산다”며 웃었다.

김씨는 “누군가에게는 필요없는 물건이  
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물건일 수

도 있다”며 “버리기는 아깝고 쓰지는 않는  
물건이 있으면 꼭 장깡(062-263-9999)에 기  
증 바란다”고 말했다. /임동률기자 exian@

## 12세 최민강군 전국 어린이 판소리 대상



어린이 판소리 부문 최고의 등용  
문인 제23회 전국어린이 판소리 왕  
중왕 대회에서 22일 최민강(전주 인  
봉초5)군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.

고창군이 주최하고 (사)동리문화  
사업회가 주관한 이날 대회는 지난  
해와 올해 전국국악연예대회에서 입  
상한 어린이 14명이 참가해 예선과  
본선에서 열띤 기량을 펼쳤다.

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 
시작한 최민강은 이번 대회에서 심청  
가 중 ‘역군들께’를 불러 뛰어난 기  
량을 인정받았다.

최민강 군은 “앞으로 판소리 명창의 꿈을 향해 부단히 노력  
하겠다”고 말했다.

이날 대회에서는 춤향가 중 ‘이별가’를 부른 임채은(광주 고  
실초6)양과 심청가 중 ‘허허 내기’를 부른 이준희(군산 미룡초  
5)군이 각각 우수상을 차지했고, 춤향가 중 ‘이별가’를 부른 염  
경관(남원 용성초4)군과 춤향가 중 ‘이도령 거동 보소’를 부른  
이기영(전주 응소초)군이 각각 장려상을 차지했다.

/전북취재본부=조종옥기자 jong@

##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26일 특강



광주시청자미디어센  
터는 26일 오후 2시 비  
영리 단체의 소셜미디  
어 활용을 주제로 ‘소  
셜미디어를 DoDo려  
라’ 특강을 개최한다고  
21일 밝혔다.

이번 특강에는 방대  
국 다음세대재단 총괄실장, 유영진 소셜  
웹전문가 그룹 vcorea.kr 대표, 이영균 온  
미디어 전략미디어마케팅 팀장이 강사로  
나선다.

‘Why-왜’, 비영리단체는 소셜미디어를  
활용해야 하는가’, ‘How-관계를 이끌어내  
는 소셜미디어 마케팅’, ‘Way-start 트위  
터’ 등 세 섹션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급속도로 변화  
하는 미디어환경에 비영리단체들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 
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제시하게 된다. 참가신청은 23일까지  
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(www.comc.gj.or.kr)로 하  
면된다.

/김경인기자 kki@kwangju.co.kr

## ‘맛있는 나눔’ 2000만원 모금

### 앰코 등 각계 후원…25일 김치 담그기 행사

광주일보와 초록우산 어린이재  
단 광주지역본부(본부장 최삼영)  
가 공동 추진하는 ‘맛있는 김치 맛  
있는 나눔’ 2010 김장김치 캠페인  
에 기관·단체의 후원이 잇따르고  
있다.

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는 22  
일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(주)가  
후원금 400만원을 전달한 것을 비  
롯해 현재까지 2000만원을 모금해  
광주지역의 소외계층 600세대에

김장김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
고 밝혔다.

이번 캠페인에는 대학생명호남  
지역본부, 광주신세계백화점 외에  
도 광주은행, 광주고등검찰청, 광  
주고등법원, 롯데백화점 광주점,  
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교육문화재  
단, 광주현대병원, 새한종합건설,  
남화도건주식회사, 미래에셋 등이  
후원을 약속했다.

한편,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 
부터 광주시 북구 동림동 장애인  
종합복지관 체육관에서는 후원 기  
관단체,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



22일 고진성(일찌)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(주) 인사그룹부장이 초록 우  
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 김장김치 캠페인 후원금 400만원을 전  
달했다. <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제공>

부터 광주시 북구 동림동 장애인  
종합복지관 체육관에서는 후원 기  
관단체,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

기운데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가  
열린다. 문의 062-351-3513.  
/김대성기자 bigkim@kwangju.co.kr

## ‘아시아 연대로 2022 월드컵 유치’

### 정동준 FIFA 부회장



2022 월드컵 개최지 선정을 열  
흘 앞둔 가운데 정동준 국제축구  
연맹(FIFA) 부회장이 한국의 월  
드컵 유치를 위해 ‘아시아 연대’  
라는 카드를 놓들었다.

정동준 부회장은 22일 서울 종  
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  
에서 열린 특별 기자회견에서  
“2022년 월드컵 유치 경쟁은 아시  
아 대 미국의 싸움이 될 것”이라며  
“아시아는 4개국이 경쟁하고 있어  
자칫하면 표가 분산될 수 있다. 남  
은 열흘 동안 아시아 연대를 형성  
한 뒤 결국 한국에서 개최하게끔  
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”이라고 밝  
혔다.

과반수 득표가 나올 때까지 투  
표가 계속 되기 때문에 일단 아시  
아 개최라는 큰 그림을 그려 놓고  
나서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탈락  
한 후보국들의 표를 모아 한국 쪽  
으로 향하게 한다는 생각이었다.

정 부회장은 이어 “가능한 빨리  
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서  
아시아 집행위원회들을 만날 계획”  
이라고 말했다.

아시아축구연맹(AFC) 회의에  
참석해 투표권 3장을 친 아시아 집  
행위원회들과 ‘아시아 연대’에 대해  
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.  
정 부회장은 “블래터 회장이 한  
국 방문에 앞서 나와 만나 한국이  
월드컵을 열면 동북아 평화에 이  
바지할 것이라고 누누이 말했다.  
그리고 직접 한국을 찾아 공개적으  
로 말했다”며 한국인 든든한 지원이  
 있다고 평가했다. /연합뉴스

### 애독자 이동범씨

### 고희기념 문집 출간



광주일보 등  
언론매체에 다  
양한 글을 기고  
해오고 있는 이  
동범(70·사진)  
씨가 최근 평소  
써온 글들을 엮  
여 문집 ‘살며 생각하며’(도서출판  
바로 폐냄)를 출간했다.

고희는 맞아 출간한 문집은 정  
년퇴직 기념문집인 ‘다시 교육을  
생각하며’의 후속편 격으로 퇴직  
이후 살아가면서 생각했던 교육문  
제에 관한 단상 등을 엮은 것이다.  
이씨는 “항상 감사하는 마음으  
로 실천해볼 수 있는 동기를 부여  
하고자 하는 작은 뜻을 담아 책을  
냈다”고 말했다.

광주대성초등학교 교장으로 정  
년퇴임한 이씨는 광주시교원단체  
총연합회장, 광주사범·사대·교  
대학교총동문회장을 역임했으며  
광주여대와 광주교육대학 강사로  
있다. /김대성기자 bigkim@

### ‘사랑의 밑반찬 나눔’

### 적십자사 광주·전남본부

대한적십자사 광주·전남지사  
(회장 김필식)는 겨울방학 중 결식  
아동 ‘사랑의 밑반찬 나눔’ 사랑의  
리퀘스트 캠페인을 전개한다.  
이 캠페인은 사각지대의 아동을  
대상으로 아이들의 수치심을 최소화  
하기 위해 겨울방학 중 적십자  
자원봉사자들 통해 밑반찬을 만들  
어 전달하는 나눔활동이다.

사랑의 밑반찬 나눔 캠페인은  
오는 12월 12일까지 모금액 3000  
만원을 목표로 진행된다.

참여방법은 기부금과 물품기부  
(쌀·우유·김치 등)도 가능하며, 적  
십자사 홈페이지(<http://red-cross.or.kr/gwangju>)를 방문 또는  
전화(062-573-0544 회원정보팀)  
로 문의하면 된다.

/채희경기자 chae@kwangju.co.kr

### 내방

▲장희국(광주광역시교육감)씨

## 보해양조 봉사단, 장성에 사랑의 연탄



보해양조(대표 임건우) ‘젊은 일생 사랑나누미 봉사단’이  
장성 지역 저소득가정에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며 훈훈한 사랑  
을 나눴다. 보해 양식원과 대학생들로 구성된 젊은 일생  
나누미 봉사단 30여명은 지난 20일 장성군에 저소득가정 8세  
대를 방문해 가구당 250장씩 총 2000여장의 연탄을 직접 전달  
했다. /최재호기자 lion@kwangju.co.kr

## 광주전남기자협-호남대 인재육성 협약



광주전남기자협회(회장 박원우)와 호남대(총장 서강석)는  
22일 오전 11시 호남대 광산캠퍼스 교무위원회의실에서 미  
디어인재 육성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. 〈호남대 제공〉

### 인사

- ◆광주시교육청
- ◇과장급 전직 ▲창의인성교육과장 직무대리 장오동 ▲빛  
고을고(신설) 교장 직무대리 최윤길
- ◇전문직 전직 ▲광주교육연수원 운영부장 직무대리 구제  
섭 ▲광주조교 교감 직무대리 김숙자 ▲장덕중 교장 겸임  
손정기
- ◆한국도로공사
- ◇부처장급 전보 ▲남원전주지사장 이준주 ▲광양남원지사  
장 일근용 ▲부주지사장 백해율 ▲호남지역부분 관리처장  
장 평필 ▲광주지사장 서성필 ▲순천지사장 진규동 ▲부안지사  
장 김시환 ▲담양지사장 정광철 ▲구례지사장 이호경

## 생활 게시판

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. opinion@kwangju.co.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 
금남로 27-20-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☎ (062)  
2200-628 FAX (062) 222-4938, 222-4918

### 화족

▲박순형(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  
장)·위난경씨 장남 성범군 박광경·  
최옥희씨 만내 혜연양=27일(토)  
오전 11시 광주 메리어트웨딩홀 1층  
에 베和睦호.

▲이묘신(기아자동차)·문선례  
(도원꽃농원)씨 장남 정웅군 김성석  
(보성녹동 이사장)·이애순씨 장녀  
선혜양=27일(토) 오전 11시 40분  
광주 메리어트웨딩 1층.

▲윤준자씨 장남 전태안군 고점  
석·김애길씨 장녀 아리양=27일  
(토) 낮 12시 30분 천주교 광주 삼각  
동 성당.

▲황경목(분향초등학교 교장)·이  
삼임씨 장남 정호군 김종태·마영숙  
씨 막내 세영양=27일(토) 오전 11  
시 40분 경복궁 웨딩컨벤션 1층(고  
운홀)

▲최찬범·남현숙씨 장남 준성군  
김영준(광주시 동구 총무국장)·노  
숙희씨 차녀 진양=27일(토) 오전  
11시 50분 한국교직원공제회 3층 웨  
딩홀.

▲윤영기(전 전남도 청본부장)·백  
영자씨 차남 상훈(금호산업)군 흥순  
원·조계옥씨 장녀 영순(인천제강)  
교사=27일(토) 오후 1시30분 서구  
서무지구 힐리데이인호텔 3층<br/